

## 컬러 블랙 :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까지 블랙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

The Color Black : Its History and Symbolic Meanings  
from Ancient Greece to the 19th Century

주 저 자 : 김경화 Kim, Kyung Hwa)

충북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연구원

교신저자 : 고봉만 Ko, Bong Mann)

충북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hermes6311@hanmail.net

---

<https://doi.org/10.46248/kidsr.2021.4.353>

접수일자 2021. 11. 23. / 심사완료일자 2021. 12. 15. / 게재확정일자 2021. 12. 25.

## Abstract

The color black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favorite color these days. It is preferred over other colors in various fields such as fashio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home appliances, and furniture.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black in fashion, packaging design, marketing, building materials and so on. These case-based researches have mainly focused on short-term trend analysis, prohibiting in-depth study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symbolism of black on the human mind. Digging a little deeper into the history of black, this study traces the genealogy of the color black symbol. We concludes that the meaning of 'subversion' was added to black by dandies and Charles Baudelaire's works in 19th century. It is not onl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alyzing the costumes in art works but also on a social semantics discussing the social functions of color.

## Keyword

Color(색), Black(검정), Symbol(상징), Dandy(댄디),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

## 요약

오늘날 블랙은 가장 애호되는 색채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패션, 건축, 실내 디자인, 가전제품,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은 다른 색보다 선호되고 있다. 패션과 마케팅, 상품 포장 디자인과 건축 자재의 색조 연구에 블랙이 특히 많이 조명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중심 연구는 현실적 실용성에 경도된 나머지 단기적 트렌드 분석에 그칠 수 있다. 인간 심성에 각인된 블랙의 상징성을 포착하는 심층 연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역사를 통해 블랙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축적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는지 그 색채상징의 계보를 추적한다. 블랙이 19세기 댄디즘과 샤를 보들레르의 시학을 기점으로 재평가되면서 '전복'의 상징을 강화하여 현대에 이른 내력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양한 시대의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이며, 시대에 따른 색채의 사회적 기능을 논한다는 점에서 사회기호학적 방법론을 취해 블랙의 역사적 상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현대사회의 블랙
- 2-2. 색채 사회기호학

### 3. 블랙의 역사

- 3-1. 고·중세 유럽의 블랙
- 3-2. 15세기 부르고뉴와 베네치아
- 3-3. 16세기 스페인과 17세기 네덜란드

### 4. 19세기 댄디의 블랙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르누아르(P. Renoir)는 “검정은 색의 여왕”<sup>1)</sup>이라고 블랙을 칭송하였고, 틴토레토(J. Tintoretto)도 “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sup>2)</sup>으로 꼽았다. 회화의 사랑을 받던 검정이 오늘날 애호되는 분야는 패션이다. 홀랜더(A. Hollander)는 “블랙을 착용하는 습관은 오랫동안 지속된 흐름”<sup>3)</sup>이라 지적하며 블랙의 독특한 개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샤넬(G. Chanel)과 이브 생 로랑(Y. Laurent)의 디자인에서도 블랙은 절대적 힘을 발휘했다. 검정에 기초해 고안된 ‘리틀 블랙드레스’와 ‘르 스모킹’(le smoking)은 패션뿐 아니라 사회변혁까지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랙이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내의 블랙 연구가 대부분 패션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정마·조진숙의 “남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2007)와 권수희·신혜영·이인성의 “알렉산더 왕의 스포티즘 패션에 나타난 블랙 패션의 상징성 연구”(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3), 2015) 등 국내 블랙 연구는 대부분 디자이너가 블랙을 활용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탐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실증 자료를 토대로 블랙의 장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본격적인 색상 연구로는 나아가지는 않았다. 블랙이 정장을 규정하는 색으로까지 정착될 정도로 인류의 사랑을 받는 근본 이유까지 논구되지는 못한 것이다. 문화비평가 하비(J. Harvey)는 “블랙이 패션의 기본이 된 것은 두드러진 색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 블랙에 축적된 유산과 기억, 다양한 결이 원인”<sup>4)</sup>이라고 지적한다. 인류사에 퇴적된 블랙의 역사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블랙의 부상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블랙의 상징성을 통해 블랙의 인기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려 한다. 패션의 관점에서 블랙의 효능을 분석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퇴적된 의미 변전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패

션은 사회적 기호로서 블랙의 상징을 규명하는 하나의 통로로 설정되는 것이다. 윌슨(E. Wilson)의 지적처럼 “의복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며, 당대의 정신, 사상, 감정, 미적 가치가 반영된 시각적 표현”<sup>5)</sup>이기 때문에 사회적 코드로서 블랙의 의미 변화 연구에 패션은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생각된다.

색상으로서 블랙의 위상은 사실 모호하다. 다빈치(L. da Vinci)는 검정을 색의 지위에서 추방했으며, 뉴턴(I. Newton)의 색채 프리즘에도 블랙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류는 가장 오랫동안 블랙을 애용했다. 안정된 색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꾸준한 사랑받은 블랙의 흔적은 문화사에서도 확인된다. 블랙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의 의미를 오가며 인류사에서 위기와 갈등의 시기마다 사회적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대 사회에서 19세기까지 블랙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했는지 사회 기호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당대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의복이 검은색 상징의 역사를 추적하는 주요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리우벤(T. Leeuwen)의 색채 사회기호학에 의거해 유럽 문화사에서 검은색의 의미 변화를 각 시대 예술작품을 통해 분석한다. 기호학은 “모든 문화 과정을 의사소통 과정이라 보고, 기호의 사회적 작용력을 탐구하는 학문”<sup>6)</sup>이다. 이 중 사회기호학은 사회 과정에서 의사소통 코드가 형성되고, 사회 권력이 이동함에 따라 의미체계도 변한다고 본다. 특히, 색채 사회기호학자인 리우벤은 “색채야말로 사회현상으로 정의”<sup>7)</sup>되고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우벤의 방법론은 기호학의 자원, 기호학의 관행, 기호학적 변화라는 세 영역에서 색채의 위상을 살피도록 도와준다.<sup>8)</sup> 사회적 현상으로 색을 조명하는 관점 또한 사회의 권력 이동에 따른 블랙 상징의 역사적 변전을 살피는 데도 유용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블랙을 조망하는 작업은 블랙의 상징 변화뿐 아니라 블랙이라는 색채 기호의 사회적 작용력까지 규명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1) 헤일리 에드워즈 뒤자르맹, 『검정, 금속과 관능의 미술사』, 고봉만 역, 미술문화, 2021, p.2.  
2) Giorgio Vasari, *Lives of Tintoretto*, J. Paul Getty Museum, 2019, p.248.  
3)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California UP, 1993, p.365.  
4) John Harvey, *Men in Black*, Chicago UP, 1996, p. 21.

5)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Rutgers UP, 2003, p.52.  
6)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P, 1976, p.8, p.65.  
7) Theo Van Leeuwen, *The Language of Colour*, Routledge, 2011, p.3.  
8) *Ibid.*, pp.8-13.

연구의 범위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의복으로 한정한다. 이 시기 검은 의상을 통해 인류는 블랙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다층적 의미와 상징을 축적했는지 조사함으로써 21세기 블랙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천년 이상 인류는 블랙이라는 색상을 통해 어떻게 주변 세계와 소통했으며, 또 기호로서 블랙은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현대 사회의 블랙

현대사회에서 블랙은 고급 이미지로 통용된다. 식품 업계와 패션계, IT 제품뿐 아니라 블랙을 금기시하던 백색사전에서도 블랙이 인기다. 화장품업계는 블랙 패키지를 활용해 세련미를 강조하고, ‘블랙라벨’로 고급 제품을 홍보하는 컬러마케팅은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블랙은 ‘반항적 이미지’였다. 20년대 사냥의 ‘리틀 블랙드레스’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의 저항이라면, “영화, 『위험한 질주』의 주인공이 입었던 검은 가죽 자켓은 50년대 비트족의 반항을 상징했다. 60년대 폭주족과 70년대 펑크족, 90년대의 고스족의 검은 복장과 검은 메이크업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청년 세대<sup>9)</sup>의 의식을 표상했다.

저항으로서 블랙이 고급스러움을 내포하게 된 내력을 알려면 색의 상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과거 블랙에 투사되던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굴절되어 현대에 이르렀기<sup>10)</sup> 때문이다.

### 2-2. 색채 사회기호학

본 연구는 리우벤의 색채 사회기호학을 방법론으로 택한다. 그의 이론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할리데이(M. Hallyday)의 사회기호학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크레스(G. Kress)와 연구한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 이론에 기초한다. 즉, 기호는 “관념적, 상호적, 텍스트적”(ideational, interpersonal, textual)<sup>11)</sup> 기능을 수행한다는 할리데이의 전제에 기호학의 대상으로 “모

드(mode)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모드란 의미 생성을 위해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기호 자원<sup>12)</sup>을 총칭한다. ‘언어’ 외에도 이미지, 말, 글, 레이아웃, 음악, 동작은 물론 가구, 옷, 음식 등, 의미를 형성할 의도가 있는 인공물이라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사회마다 선호하는 모드가 따로 있고,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모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구사회는 그동안 ‘언어’ 모드만 중요시했다. 리우벤은 언어중심 ‘모노모달리티’(monomodality)에 의존해서는 현대사회에 부유하는 복잡한 기호를 해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문서만 보더라도 내용에 따라 폰트를 달리하고 여러 색상은 물론 삽화도 자유자재로 첨부되는 경우가 흔하다. 언어 외에도 컬러, 삽화, 포트, 레이아웃 등 다양한 요소가 기호해석에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해독의 난해성을 이유로 배제되었던 ‘이미지’가 사회기호학에서 소환된다. ‘말’과 ‘글’과 달리 이미지는 ‘날말도 ‘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공간 속에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생산<sup>13)</sup>하는 모드로 정의된다. “정보 가치(information value), 현저성(salience), 틀짜기(framing)<sup>14)</sup>라는 이미지의 배치 문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문맥이다. 사회기호학에서 기호는 사회 권력에 영향을 받아 의미를 형성하고, 또 권력 이동에 따라 의미체계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재해석된다.

여기서 리우벤은 컬러의 힘에 주목한다. 이미지처럼 독립적 모드는 아니지만 할리데이가 언급한 기호의 3중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모드와 자유롭게 결합해 ‘잠재적 의미’(meaning potential)를 생산하여 사회 변화를 초래<sup>15)</sup>하기도 한다. 색이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사례로 리우벤과 크레스는 각각 몬드리안(P. Mondrian)의 원색과 사냥의 리틀 블랙드레스를 든다. “몬드리안은 순도와 채도가 가장 높은 컬러를 사용해 모더니즘의 실험정신을 드러냈으며<sup>16)</sup> “리틀에 젠더와 에로틱함을 담고 ‘블랙에 에로틱

9) John Harvey, Men in Black, Chicago UP, 1996, pp.246-247.

10) Ibid., p.246

11) Theo Van Leeuwen, Op, Cit., p.10.

12) Gunther Kress,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Routledge, 2010, p.79.

13) Ibid., p.82.

14) Gunther Kress & T. Leeuwen,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Routledge, 1996, p.183.

15) Gunther Kress & Theo Leeuwen, “Colour as a Semiotic Mode: Notes for a Grammar of Colour”, Visual Communication, 1(3). 2002, p.355-360.

16) Ibid, p.366.

함과 권력을 결합한 샤넬 드레스”<sup>17)</sup>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시대 요구를 선취했다고 평가한다.

컬러는 이렇게 의미를 만드는 사람의 관심과 동기를 반영하고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컬러를 만들고,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며, 컬러의 코드와 가치를 구성하고 컬러를 관습과 연결해,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도 사회”<sup>18)</sup>기 때문이다. 컬러 해독에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이다. 블랙의 상징성 변화 연구에는 색채 사회기호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 3. 블랙의 역사

#### 3-1. 고·중세 유럽의 블랙

일찍이 검정은 ‘죽음’과 ‘권력’ 혹은 ‘생명’과 결부되어 사용되었다. 그리스 시대부터 장례식에 검은 옷이 등장했으며, 그림1에서 보듯 신적 존재들은 검정으로 표현되었다. 로마 시대 지배층은 평상시에도 검은 옷을 입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소라에서 얻은 ‘티리언 퍼플’(tyrian purple)은 붉은 보라에서 검은 보라까지 다양한 색이 나지만 최고 귀족들은 검은 보라를 선호했다. “검은 보라는 실제 검정에 가까운 색”이었다.<sup>19)</sup>



그림 1. 장기 두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sup>20)</sup>

17) Gunther Kress, Op, Cit., p.88.  
 18) Michel Pastoureau, *Black: The History of a Color*, Princeton UP, 2009, p.16.  
 19) Mark Bradley, *Colour and Meaning in Ancient Rome*, Cambridge UP, 2011, p.193.  
 20) <http://arthistoryresources.net/greek-art-archaeology-2016/archaic-BF-exekias-achilles.html>

블랙이 어떻게 지고의 권력을 의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허비는 블랙이라는 컬러가 주는 독특한 인상에서 답을 찾는다. “사람들은 검은색을 접하면 완전한 암흑 속에 있을 때처럼 끝없이 전개되는 새로운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sup>21)</sup>고 지적한다. 검정의 불투명성에서 인간은 자신의 미약함과 더불어 절대자의 권능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적 권능을 상징하던 블랙은 기독교 전파와 함께 의미가 변모한다. 블랙의 어둠이 강조되어 ‘죄’와 ‘죽음’으로 해석되면서 악마는 검정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광야에서 예수가 받은 유혹을 그린 그림2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 광야에서의 유혹<sup>22)</sup>

중세시대 검정을 표상하는 또 다른 세력은 도미니크 수도회였다. 수도회 사제들은 죄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었지만 이들이 주재하는 종교재판 덕분에 일반 신도들이 사제복의 검정에서 느낀 것은 ‘참회의 겸손’보다는 ‘권력의 힘’이었다.



그림 3. 조반니 벨리니, 도미니크 수사<sup>23)</sup>

21) John Harvey, *The Story of Black*, Reaktion Books, 2013, p.65.  
 22) <https://news.artnet.com/opinion/frick-madison-duccio-temptation-of-christ-on-the-mountain-1950833>  
 23) <https://www.nationalgallery.org.uk/paintings/giovanni>

그림3은 13세기 순교한 베로나의 성 베드로 (Peter of Verona)를 그린 벨리니(G. Bellini)의 작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도미니크 수사들은 검은 외투 안에 흰 사제복을 받쳐 입어 “검은 죄로부터 사함 받은 영혼”<sup>24)</sup>을 표상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이들을 ‘검은 수사(black friar)라 통칭할 정도로 블랙의 권위에 먼저 압도되었다. 지고의 신적 권능에서 지상의 권력으로 블랙의 의미가 축소된 데는 블랙을 죄와 결부시킨 기독교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도미니크 사제복이 지닌 권력의 힘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곳은 중세 말 부르그뉴 공국의 궁정과 베네치아 상인 사회였다. 오늘날 프랑스 동부와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세력을 뻗었던 부르그뉴 공국의 필리프 3세 (Philippe III)는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대내적으로는 권력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검은 의상을 착용했다. 그런데 군주의 영향력이 궁정과 베네치아 상인사회에 퍼지면서 블랙은 ‘저항’과 함께 ‘우아미’를 담게 된다. 15세기 부르그뉴의 블랙이 16세기에 스페인 가톨릭 사회에, 17세기에는 네덜란드를 위시한 프로테스탄트 사회로 전파되었던 것은 부르그뉴 공국에서 블랙이 이미 풍부한 의미를 전유했기 때문이다.

### 3-2. 15세기 부르그뉴와 베네치아

부르그뉴 공국의 필리프 3세는 프랑스에서 암살당한 선왕을 기리고 끝까지 프랑스에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평생 검은 옷을 입었다. 군주가 검은 의상을 입는다는 것은 당시 아주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의 블랙 패션은 새롭게 부상하는 상인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4. 로히에르 베이던, 필리프 3세 초상(1445)<sup>25)</sup>

i-bellini-a-dominican-with-the-attributes-of-saint-peter-martyr

24) John Harvey, Op. Cit., 1996, p.48.

그림4에서 필리프 3세는 값비싼 검은 벨벳으로 자신의 대내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대 사람이 주목한 것은 천의 재질보다는 검정이라는 색채였다. 쿠르투아(J. Courtois)는 『색의 문장』(*Le Blason des couleurs*)에서 “검정은 슬픔, 겸손, 위엄, 당당함”이라 정의한 후, “단순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세련미”<sup>26)</sup>라는 새로운 색채 인식까지 보여주었다.

부르그뉴의 검정은 아래로 전파되어, 부유한 상인들의 보호색이 되었다.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집단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검정은 “과시를 거부하는 시늉을 하면서 과시하는 색,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위엄을 보이는 색”<sup>27)</sup>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블랙의 복잡미묘한 상징 덕분에 상인들은 궁정과 신뢰를 지키며 경제적 부를 일궈고, 궁정은 안심하고 아들과 거래할 수 있었다.

이제 검정은 공정거래를 보증하는 색으로 부상한다. 당시 부르그뉴 공국에 살면서 왕실에 천을 공급한 이탈리아 상인, 아르놀피니(G. Arnolfini)와 그의 부인을 그린 그림 5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sup>28)</sup>

25) [https://www.wga.hu/html\\_m/w/weyden/rogier/16portra/04philip.html](https://www.wga.hu/html_m/w/weyden/rogier/16portra/04philip.html)

26) John Gage, *Colour and Culture*, California UP, 1999, p.82.

27) John Harvey, Op. Cit., 1996, p.65.

28) <https://www.artstor.org/2017/06/06/the-many-questions-surrounding-jan-van-eycks-arnolfini-portrait>

여기서 아르놀피니를 지배하는 이미지는 한 치 실수나 오차도 허락할 것 같지 않은 상인의 엄격함과 공정성이다. 검은 의상이 주는 효과 덕분에 그는 귀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만큼 과시하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위엄을 갖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그림 6. 티치아노 베첼리오, 성모참배<sup>29)</sup>

부르고뉴의 검정은 당시 세계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베네치아로 전파되어 성공한 상인의 자긍심을 담게 된다. 그림6에서 붉은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은 검은 옷을 입은 세 남자의 안내를 받으며 성모를 참배한다. 성스러운 잔치에 귀족을 실제로 인도하는 이들은 베네치아 상인이다. 블랙을 입을 수 있는 상인 계층이 레드를 입은 귀족을 밀어내고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그림은 잘 보여준다.

이렇게 계층과 영토를 횡단하며 전파된 부르고뉴의 블랙은 색채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유럽 문화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페스트의 만연과 봉건제 붕괴, 그에 따른 사회 분열과 자유로운 신분 이동이 가능한 시기에 새로운 세력은 블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힘을 웅변하고자 했다. 필리프 3세는 강력한 프랑스에 저항해 블랙을 군주의 의상으로 취했고, 부르고뉴의 신흥 상인들은 기존 귀족층에 대해 자신들만의 블랙을 수호했다. 공포와 기대, 불안과 희망이 대등하게 팽창하는 시대에 양 세력에 의해 선택된 블

29) [https://www.wikiwand.com/it/Presentazione\\_di\\_Maria\\_al\\_Tempio\\_\(Tiziano\)](https://www.wikiwand.com/it/Presentazione_di_Maria_al_Tempio_(Tiziano))

랙은 대내외적으로 힘의 재편을 요구하는 사회학적 기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3. 16세기 스페인과 17세기 네덜란드



그림 8. 티치아노 베첼리오, 카를 5세(1548)<sup>30)</sup>

그림 9. 소포니스바 앙귀솔라, 필리페 2세(1565)<sup>31)</sup>

부르고뉴의 블랙은 16세기 스페인 궁정으로 전파되어 도도한 시대 흐름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낸다. 스페인 왕실은 세계 최강의 가톨릭 국가라는 위치에서 강성해지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의식해 검은 의상을 선택했다.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를 겸했던 카를로스 1세의 초상(그림8)은 황제가 얼마나 블랙에 심취했는지 잘 보여준다. 뒤를 이은 필리페 2세의 초상(그림9)을 보면 블랙에 신체를 조이는 디자인과 높은 목 장식이 더해져 가톨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검정 역시 부르고뉴의 그것처럼 권력의 최고점에서 심각한 분열 징후를 발견하고 내부와 외부를 단속하는 사회적 기호 역할을 수행하였다. 16세기 스페인은 제국의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영토해체와 기독교 분열을 지켜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 군주의 검정은 정치적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발휘되는 권력의 힘을 표상했다. 그러나 결국 무적함대의 패배와 함께 스페인의 검정은 프로테스탄트 국가에 의해 스러지고 만다. 가톨릭의 엄격한 검정이 검소를 표방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사회적 기호로 변모되는 아이러니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 발견된다.

30)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V,\\_Holy\\_Roman\\_Emperor](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V,_Holy_Roman_Emperor)

31) [https://en.wikipedia.org/wiki/Philip\\_II\\_of\\_Spain](https://en.wikipedia.org/wiki/Philip_II_of_Spain)



그림 10. 에크호우트, 암스테르담 동 제조업 길드<sup>32)</sup>

그림10은 에크호우트(G. Eeckhout)가 암스테르담 포도주동 제조업 길드의 관리들을 그린 것이다.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화가의 형도 이 길드 소속이었다. 평범한 상인들과 그 옆에 온순하게 앉아있는 개의 모습에서 16세기 스페인 왕실과는 전혀 다른 프로테스탄트의 검소함과 종교적 충직을 느낄 수 있다.



그림11. 헤라르트 테르 보르흐, 젊은 남자의 초상<sup>33)</sup>

보르흐(G. Borch)의 초상화(그림11<sup>34)</sup>)는 네덜란드의 검소한 블랙이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속 청년은 장식 달린 높은 모자를 쓰고 검은 긴 망토와 화려한 검은 바지를 입은 채 붉은 융단을 배경으로 서 있다. 프로테스탄트 선조

32)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Gerbrand-van-den-Eeckhout>

34) <https://www.nationalgallery.org.uk/artists/gerard-ter-borch>

와 같은 검은 색 복장이지만, 그의 검정은 부를 과시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복장과 구별된다.

‘성실’과 ‘검소’라는 자본주의 윤리를 검은 의복이라는 사회적 기호를 통해 설파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은 18세기를 거치며 속물화되어 간다. 이런 연유로 19세기 유럽 지성인들은 민주주의의 좌초에도 낙담했지만 교양과 개성을 상실한 대중에 대해서는 더욱 개탄했다.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이 된 프로테스탄트 시민들이 자신들이 비판했던 귀족처럼 안일하고 무기력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19세기 댄디(dandy)의 블랙은 이러한 시대를 전복하는 저항의 서사로 등장한다.

#### 4. 19세기 댄디의 블랙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며 유럽에 등장한 댄디는 블랙에 ‘반항’과 ‘전복’의 의미를 확실하게 새겨놓은 이들이었다. 최초의 댄디로 불리는 영국의 브러멜(G. Brummell)은 화려한 귀족 복장 대신 검은 모자, 검은 프록코트, 검은 승마 장화를 착용하고 런던 사교계에 등장해 문화적 충격을 안겼다. 브러멜의 블랙 의상은 단순하면서도 화려했고 또한 도도했다.

댄디 패션의 블랙 미학을 간파한 곳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 도르비이(J. B. d'Aureville)는 브러멜의 절제된 우아미에 경도되어 댄디아말로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조각하여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sup>35)</sup>이라고 칭송해 맞이한다. 대중 속에서 자아를 잃은 채 살아가는 당대 시민들에게 댄디즘은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믿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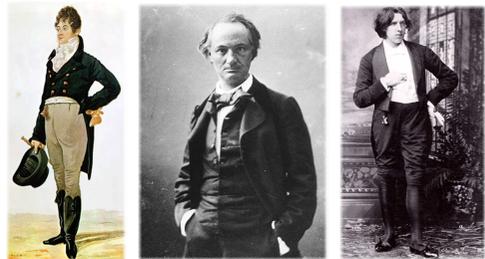


그림12. 왼쪽부터 브러멜, 보들레르, 와이어드<sup>36)</sup>

35) 쥘 바르베 도르비이, 『멋쟁이 남자들의 이야기 댄디즘』, 고봉만 역, 이봄, 2014, p.57.

36) [https://en.wikipedia.org/wiki/Beau\\_Brummell](https://en.wikipedia.org/wiki/Beau_Brummell)

그림12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댄디들이다. 이들이 착용한 블랙 자켓에는 전 시대 프로테스탄트 복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성과 자유로움이 있다. 각자 제멋에 취한 듯하나, 말을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재치 있는 유머로 답할 것 같은 모습이다. 냉정하면서도 우아하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타인에게 개방적인 인상에서 댄디의 나르시시즘과 남성적 교태도 엿보인다. “남성적 힘과 여성적 섬세함의 결합”<sup>37)</sup>이라는 댄디의 이상이 이들의 블랙 패션이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보들레르(C. Baudelaire)는 블랙을 통해 댄디즘 철학을 완성한 지성적 댄디였다. 귀족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혼돈의 시대, 몰(沒)취미, 몰(沒)개성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보들레르는 블랙 패션을 취했다. “스스로 독창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sup>38)</sup>에 이끌렸던 그는 블랙에서 ‘우울’과 ‘냉담’을 보았고 ‘유혹적인 우아함’과 ‘평등에 대한 염원’까지 읽어냈다. 혼탁하고 천박한 사회를 전복하는 사회적 기호로서 블랙을 시와 예세이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은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우울을 표상한다. 『악의 꽃』 중 ‘우울’(Spleen)에서 고뇌는 “밤보다 쓸쓸한 검은 빛”(un jour noir plus triste que les nuits)을 받아 “꼭 숙인 제 머리에 검은 깃발을 깊숙이 꽂는” (l'Angoisse atroce, despotique, / Sur mon crâne incliné plante son drapeau noir.) 모습으로 의인화된다. 블랙에 내포된 죽음의 이미지는 현대의 고뇌와 겹쳐 죽음보다 더 깊은 우울을 빚어낸다.

둘째, 블랙은 파멸로 치달는 유혹도 내부에 숨기고 있다. 『환영』(Un Fantôme)에서 “검지만 빛나는”(noire et pourtant lumineuse) 소녀에게 매혹되었던 시인은, 『죽음 뒤 찾아온 회한』(Remords posthume)에서는 “새까만 대리석 겹겹이 쌓인 무덤(d'un monument construit en marbre noir)까지 여자를 따라간다. 검은 유혹에 이끌려 따라간 곳이 검은 대리석 무덤이라는 설정은 블랙에 내포된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암시한다.

셋째, 블랙은 ‘웅변적인 냉담’이라는 역설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보들레르에 따르면 검정은 “고독하고 무

의미한 제로”(zéro solitaire et insignifiant)<sup>39)</sup>로 존재한다. 홀로 미미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블랙이 주변과 어울려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위대한 색채가라면, 검은 연미복(habit noir)과 흰 넥타이, 회색 배경으로 거뜬히 색을 창조할 줄 아는 것.”<sup>40)</sup>처럼 댄디들은 단순한 블랙 패션으로 주변과 어울려 가장 다채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라고 보들레르는 정의한다.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그 주변으로 하여금 대신 말하게 하는, 블랙의 ‘웅변적인 냉담’은 댄디가 실천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댄디는 고양이”<sup>41)</sup>라는 표현은 외따로 고고한 블랙의 성질을 댄디와 잘 결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블랙은 평등한 아름다움을 은유한다. 프랑스 혁명 후 화려한 귀족 복장과 가발은 사라지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검은 연미복을 입을 수 있는 평등 사회가 전개된다. 보들레르의 뇌리에 검은색은 이제 고뇌에 찬 시대에 어울리는 상복이면서 전 인류의 평등한 표현으로 새겨진다. 검은 연미복이 주는 애잔함은 정치적이고도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저렇게 조롱받은 연미복이지만, 그 아름다움과 고유한 매력이 없을까? 그것은 현대라는 고뇌로 가득 찬 검고 마른 어깨에까지 영원히 상복을 입은 상징을 짊어지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의복이 아닐까? 연미복과 르댕고트는 전 인류의 평등한 표현이라는 정치적인 미뿐만 아니라, 대중의 혼의 표현이라는 시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sup>42)</sup>

보들레르에게 19세기의 블랙은 곧 평등한 아름다움이었다. 과거 블랙이 지녔던 ‘죄’와 ‘죽음’, ‘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이제 대중의 혼을 표현하는 시적 아름다움으로 격상된다. 이렇게 보들레르는 댄디의 검정에서 19세기의 문화적 코드를 읽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블랙을 예고하였다.

## 5.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리우벤의 색채 사회기호학 관점에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Baudelaire](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Baudelaire)  
<https://www.tcd.ie/library/exhibitions/wilde/>  
 37) Ellen Moers,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m*. Secker & Warburg, 1960, p.264.  
 38) Charles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Œuvres complètes*, Gallimard, tome2, 1976, p.709.

39) Ibid., p.422.  
 40) Ibid., p.495.  
 41) Lynette Black, “Baudelaire as Dandy: Artifice & the Search for Beauty”, *19th-Century French Studies* 17(1/2), 1988, p.186.  
 42) Charles Baudelaire, Op. Cit., p.494.

서 고대부터 19세기까지 블랙 의미 변화를 추적해 문화적 코드로서 블랙의 상징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를 통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블랙에 내포된 ‘죽음’과 ‘신성’이라는 상반된 상징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상징을 퇴적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 말 부르고뉴에서 ‘권력과 품위’, ‘공정과 신뢰’, ‘검소와 경건’, ‘우아미’라는 함축적 의미와 함께 ‘반항’이라는 사회적 기호로 작동했던 블랙은 이후 역사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반복하였다. 16세기 스페인 왕실의 검은 복장과 17세기 프로테스탄트의 검정 의상은 종교적 지향은 달랐지만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러한 검정의 잠재적 의미를 읽어낸 이들은 19세기 유럽의 댄디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보들레르는 시민 의상으로 정착된 검정 연미복에서 ‘시대의 고뇌와 우울’, ‘치명적 유희’와 ‘냉담’, ‘정치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읽어낸 색채의 선각자였다.

역사에서 블랙은 새로운 변혁이 요청되는 시기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미 충전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호였다. 한편으로 분열의 시대를 예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갈등의 봉합을 요구하는 문화적 코드였다. 오늘날 블랙의 인기는 과거에 축적된 이러한 블랙의 풍요로운 상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바르베, 도르비이, 쥘, 『멋쟁이 남성들의 이야기 댄디즘』, 고봉만 역, 이봄, 2014.
2. 에드워즈, 뒤자르댕, 헤일리, 『검정, 금욕과 관능의 미술사』, 고봉만 역, 미술문화, 2021.
3. 권수희·신혜영·이인성, “알렉산더 왕의 스포티즘 패션에 나타난 블랙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3), 2015.
4. 이정마·조진숙, “남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2007.
5. Baudelaire, Charles, Œuvres complètes, Gallimard, 1975-1976.
6. Black, Lynette, “Baudelaire as Dandy” 19th-Century French Studies 17(1/2), 1988.
7. Bradley Mark, Colour and Meaning in Ancient Rome, Cambridge UP, 2011.
8.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P, 1976.
9. Gage, John, Colour and Culture, California UP, 1999.
10. Harvey, John, Men in Black, Chicago UP, 1996.
11. \_\_\_\_\_, The Story of Black, Reaktion Books, 2013.
12. Hollander, Anne, Seeing Through Clothes, California UP, 1993.
13. Kress, Gunther,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Routledge, 2010.
14. Kress G. & Leeuwen, T. V.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Routledge, 1996.
15. \_\_\_\_\_, “Colour as a Semiotic Mode: Notes for a Grammar of Colour”, Visual Communication, 1(3). 2002.
16. Leeuwen, Theo Van, The Language of Colour, Routledge, 2011.
17. Moers, Ellen,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m, Secker & Warburg, 1960.
18. Pastoreau, Michel, Black: The History of a Color, Princeton UP, 2009.
19. Vasari, Giorgio, Lives of Tintoretto, J. Paul Getty Museum, 2019.
20.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Rutgers UP, 2003.